

불법조업

한 번은 김 집사님께서 늦은 밤 10시경 나의 집을 찾아 오셨다.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 바닷가에서 돌아오는 길이라며 잡아온 것을 놓고 간다고 하셨다. 그리고 큰 봉투를 주셨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보았더니 게(Dungeness Crab) 5마리였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여쭙어 보았더니 “목사님 생각하며 잡은 것인데 암컷들”이라고 하신다. 그 말에 깜짝 놀라 “암컷을 어떻게 가지고 왔느냐”고 물으니,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암컷 맛을 보게 하려고 목숨을 걸고 잡아왔다”고 하셨다.

그 게는 내가 살던 곳에서 알래스카에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Crab)인데 그렇게 큰 것을 잡기도 힘이 들지만, 암컷은 불법이었다. 암컷은 잡아도 놓아주어야 하고, 혹 잡은 것이 발각 되면 한 마리당 \$120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김 집사님은 목소리도 굵고, 하는 행동도 조폭이 무서워 할 만한 성품을 가진 분이었지만 나에게서는 항상 따뜻하게 격려하며 못살게(?) 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말기라고 하던 분이였다. 그래서 내가 “늘 집사님은 베드로와 같은 분”이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벌금을 지불할 생각을 하며 5마리를 잡아 가지고 오신 것이다. 그러니 그 게는 거의 \$600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밤에 문을 닫지 못하고 게 봉투를 들고 서 있는 저에게 “괜찮으니 들어가서 맛있게 먹으라”고 하시고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셨다.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다. 목사가 불법 조업으로 얻은 것을 먹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해야 하는가? 혹은 경찰에 신고(?) 해야 하는가? 잠깐의 생각이었지만 결론은 집사님의 대담함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공공이 생각해 보니 게가 크고 비싼 것이어서가 아니라 김 집사님께서 바닷가까지 가는 거의 2시간 그리고 암컷을 잡기 위하여 보낸 여러 시간 또한 돌아오는 2시간을 합하면 하루 종일 그 게를 잡기 위하여 수고하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

교회에 다른 분들은 그 집사님의 말이 강하고 직선적이어서 가까이하기 꺼릴 때도 있었고,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늘 담배 냄새가 풍기는 옷을 입고 다녀서 교회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했으며, 어린 나에게 담배 좀 끊으라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 그 집사님의 부족한 목사인 나에 대한 사랑은 결코 금이 가지 않았다.

요즘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얼마 전 돌아가신 김 집사님이 보고 싶어진다. 그 이유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잘 알지 못해서 늘 “아멘”으로 답을 했지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만큼은 바르게 하셨던 김 집사님의 사랑이 진짜였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세련되지 못하고,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집사님의 방식으로 진정 사랑함을 보여주기 원했던 그 사랑이 나에게 고마움으로 새롭게 다가온다.

하나님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1서 3장 16절)고 하시면서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라고 하신다. 그러고 생각하니 받은 사랑이 더 많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그 사랑을 퍼 나르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다.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한다면 세상이 감당 할 수 없는 자들이 되며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고 세상에는 갈 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사랑을 갈급해 한다. 진짜 사랑을 말이다.

미국에 와서 먹은 첫 번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알이 껍질 찬 게의 맛은 일품이었다. 사랑의 향기가 가득했기 때문이다.